

“광주의 중심 동구 변화”

임택 광주 동구청장 당선인



임택 광주 동구청장 당선인은 14일 “6·13 지방선거를 통해 동구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쇠퇴한 동구를 혁신해 청년이 돌아오고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만들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이 있었기에 동구청장으로 당선될 수 있다”며 “동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준 동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임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광주시, 민주당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동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그 동안 소외됐던 동구를 광주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람 중심 자치구 만들겠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당선인은 14일 “주민과 허물없이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구를 사람 중심의 모범 자치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서구를 바꾸라는 주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행정이 출신이 아닌 정치인인 저에게 서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해주셨다”며 “투표로 보여 주셨던 주민의 뜻, 이제는 참여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 당선인은 “함께 경쟁했던 임우진 후보님께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서구 발전에 필요하면 경륜과 지혜도 정성껏 받아들이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마저 온전히 섬기겠다”고 밝혔다.

“소망·바람 행정 통해 실현”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당선인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당선인은 14일 “남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고 남구를 더 발전시켜 달라는 시대적 요구의 결과”라며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교육과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 돈벌이가 걱정인 상인,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 노후를 고민하는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행정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조성”

문인 광주 북구청장 당선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 당선인은 14일 “저의 북구청장 당선은 북구주민의 승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고 말했다.

문 당선인은 “연제나 처음처럼 주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열악한 구의 재정 등 어떤 난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민·관 등 지역공동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삶 곳곳에서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성장·변화·공정·평화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구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더불어 잘사는 북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활력·품격있는 광산 건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인은 14일 “매력과 활력이 넘치고 품격 높은 ‘광주 경제 1번지’ 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민선 7기는 지방자치의 전환과 쇠퇴의 시기로, 본격적인 지방분권·4차 산업혁명·남북교류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의회와 상호 협력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행하겠다”며 “민주당 광주시장, 시·구 의원과 힘을 합쳐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다.

또 “주민들이 광산구에 거주하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와 여성, 어르신이 모두 행복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퇴 의사 밝힌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당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119석→130석...원내 지배력 ‘강화’

6·1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1당 지위가 더욱 강화됐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니 총선’이라 불린 이번 재보선 12곳 지역 중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전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차출된 김경수(경남 김해울)·양승조(충남 천안)·박남춘(인천 남동) 전 의원 3명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다시 채웠다.

여기에 서울 송파울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북 제천·단양까지 8곳을 더 따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국회 내 의석수는

기존 119석에서 130석으로 늘었다.

특히 민주당은 부산·울산 등 이른바 불모지에서 의석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체 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약 30%인 5명이 됐고, 유일한 민주당 소속 울산 의원을 배출했다.

이번 재보선에서 ‘원내 1당 탈환’을 노렸던 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김천 1곳에서 서만 승리, 의석수를 112석에서 113석으로 늘리는데 그쳤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결과 따라 지역의원 희비 ‘교차’

이개호·박지원, 타격 불가피...운영일·황주홍, 정치력 상승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최대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선거결과를 놓고 지역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본인의 선거는 아니었지만 이번 선거결과가 2년 후 있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원들 가운데서 먼저 여당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이개호 의원(담양·장성·함평·영광)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 4개 가운데 장성군은 무소속 유두석 후보에게, 함평은 민주평화당 이운행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장성군 선거의 경우 선거 초기부터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여론조사에서 뒤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함평군 선거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김성모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를 점치고 있었으나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상당부분

정치적 입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전남정치를 놓고 지역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해는 국회의원 본인의 선거는 아니었지만 이번 선거결과가 2년 후 있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원들 가운데서 먼저 여당의 유일한 현역의원인 이개호 의원(담양·장성·함평·영광)의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 4개 가운데 장성군은 무소속 유두석 후보에게, 함평은 민주평화당 이운행 후보에게 각각 패했다. 장성군 선거의 경우 선거 초기부터 민주당 후보가 줄곧 여론조사에서 뒤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함평군 선거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불과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김성모 후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무난한 승리를 점치고 있었으나 불의의 일격을 당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상당부분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의원이 3명인 광주에서 구의원 1명도 당선시키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반해 평화당 운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은 해남군수 선거에서 승리하며 그나마 자존심을 지켰다.

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강진·장흥)은 4개 지역구 가운데 고흥에서 송귀근 후보가 승리했다. 강진에서는 민주당 이승욱 후보, 장흥에서는 무소속 정중순 후보를 상대로 마지막까지 선전을 펼쳤다.

평화당이 승리한 3개 지역 가운데 운영일 의원과 황주홍 의원 지역이 한군데씩 포함됐는데 위안을 삼아야 했다.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싹쓸이가 여전했다. 다만 진도군 도의원 선거에서 평화당이 승리했고, 영암군에서는 2개 선거구 가운데 정의당 후보가 1곳에서 승리했다.

광주에서도 동구 2명, 서구 4명, 남구 3명, 북구 6명, 광산구 5명 등 20명의 시의원 모두가 민주당이었다.

/서울=강병운 기자

‘당락 가른 2표’ 초박빙 선거구

완도 가선거구 ‘2표차’ 당락  
목포시장 선거 292표차 희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압승’을 거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곳들이 주목받고 있다.

단 2표 차로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도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결과에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완도군 가선거구에 총 9명의 후보가 도전했다.

득표순위에 따라 민주당 박재선 후보가 3,462표(19.05%), 무소속 이범성 후보 2,885표(15.87%), 무소속 최정욱 후보 2,529표(13.91%), 민주당 박인철 후보 2,008표(11.05%)로 당선됐다.

민주당 박인철 후보는 2,006표(11.03%)를 기록, 2표 차이로 5위가 되면서 고배를 마셨다.

불과 수십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들도 있다.

광역의원을 선출하는 완도군 1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신 후보가 7,075표(38.85%)를 획득, 7,121표(39.1%)를 얻은 민주당 이철 후보에게 46표, 0.05% 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광역의원 선거구인 광주 광산구다선거구에서도 4,451표(10.61%)를 기록한 정의당 김영관 후보와 4,385표(10.45%)를 얻은 민중당 김은정 후보가 66표 차로 당

락이 갈렸다. 해남·진도 등에서도 200여표 차로 희비가 엇갈린 후보들이 잇따라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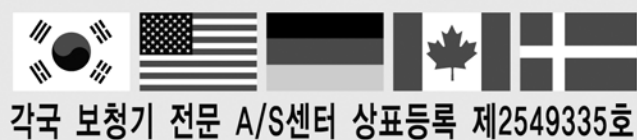
개표율이 90%를 넘길 때까지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목포시장 선거는 민주당 김종석 후보가 292표 차로 승리를 거뒀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5만6,284표(47.75%)를 얻어 5만5,992표(47.5%)를 획득한 민주평화당 박홍을 후보를 0.25%포인트 앞섰다.

개표 초반만 해도 현직시장 프리미엄을 안은 박 후보가 우세했으나, 투표함이 열릴 때마다 격차를 좁히며 역전의 주인공이 됐다.

박 후보 측은 법원에 투표함 보전신청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재검표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는 재검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근산 기자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